

굿모닝인천

DECEMBER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36

12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1.12.06(수) 발행

추억

조병화趙炳華 ; 1921-2003)

잊어 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 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 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글 김영승

모든 추억은 일방적이다. 나의 줄시 ‘일방적인 추억’이라는 시도 있지만, 가령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보로우의 추억’의 가사 “그녀는 진정한 나의 사랑이었네” 운운하는 회상도, 그리고 은희의 ‘꽃반지 끼고’라는 노래의 가사 “생각난다 그 오솔길” 운운도, 정작 그 당사자는 몰라? 하고 부인할 지도 모른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운운하는 박인환 사망 직전에 썼다는 그 시 ‘세월이 가면’도, 아니 그 눈동자에 입술이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했었지만, 이해가 간다.

이 시는 그가 인천중학교(제물포고등학교) 재직 시절 자비로 출판한 시집 <버리고 싶은 遺産>(산호장, 1949)에 수록된 시다. 생전에 그를 혹독히 비판했던 평론가는 당시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김영무(金榮茂 ; 1944-2001)인데, 관념어 남발 등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를 거의 ‘댄디스트’ 정도로 여겼었다. 그 런데 그의 그 쉬운 시들이 이토록 긴 생명력이 있을 줄이야.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걷는 사람들. 뭘 잊어버리자고.

그가 걸었던 그 바다 기슭은 어디쯤일까. 조병화는 여전히 그렇게 걷고 있는 것 같다.

12

DECEMBER
2021
Vol. 33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지원 이북바로가기 | 12월의 시민 목소리 김승현, 최혜경, 임하정 독자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인천 미소 섬이 들려주는 이야기 外	04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부평공원	05
르포 단계적 일상회복 현장	06
스케치에 비친 인천 강화도 장화·내리	12
연말특집 애독자들과의 송년대담	18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⑩ 인천문학초등학교	22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⑥ 김구라	26
정책 만화 인천형 청년정책	30
문화 캘린더 뮤지컬 ‘헤드윅’ 外	32
문화 쏙인 연말 공연	34
인터뷰 인천시 홍보대사 장민희 양궁 국가대표	35
이미지 뉴스 인천시 일상 회복·민생 경제 지원 대책	36
시정 뉴스 인천의 유망 마이스 스타트업 ‘거침없이 스타트업!’ 外	37
의회 뉴스 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外	42
컬러링 인천 을왕리 선녀바위	44
시민 작가전 2021 컬러링 인천	46
인포 박스 마을 세무사를 찾습니다 外	48
2021 독자 설문 조사 결과	52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⑫ 보문사 마애관음좌상	53
소소한 인천사 자춧빛 제비섬이었던 ‘영종도’ 外	54
仁生 사진관 안녕, 2021	55
2021년 과월호 목차	56
인천의 아침 백령도의 하늘	58
포토 에세이 여명의 2022년을 기다리며	59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섬이 들려주는 이야기

‘스케치에 비친 인천’ 덕적도 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8개의 유인도와 34개의 무인도가 있는 섬, 서해에서 가장 큰 갈대 군락지가 있는 곳이 덕적도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인천의 많은 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보물, 섬 이야기를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 김태완 부평구 경원대로

반갑다! 워드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난관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12월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워드 코로나 시대 가볼 만한 곳’에 소개됐던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마음 편히 둘러볼 참입니다.

— 김규연 서구 염곡로

건강하고 맛있는 인천을 위해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땅에서 식탁까지, 아름다운 연결고리’에 소개된 두리버섯농원처럼, 우리 주변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해 주세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한 친환경 도시 인천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한보련 중구 신포로

대한민국 1등 시정 매거진

매월 <굿모닝인천>을 통해 많은 정보와 재미를 얻는 시민입니다. 내년에는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대형 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굿모닝인천>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1등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았고, 더욱 힘차게 돌아올 2022년을 기대합니다.

— 최은순 연수구 한나루로



부평공원



달리고 또 달린다

글 류인복(부평구 산곡동)

집 발코니에 서면 ‘부평공원’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공간으로 발길을 옮긴다. 아침마다 운동을 위해 찾는 곳이다. 새벽 러닝으로 서너 바퀴 달리고 돌아오면 하루 일과가 상쾌하게 시작된다. 오랫동안 이용한 공원이지만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 했던가. 요즘 들어 부평공원을 찾을 때마다 눈길에 멈춰지는 곳이 있다. 광장 정면에 있는 ‘인천평화의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이다. 일제강점기가 만들어낸 선인들의 비극적인 참상이 아닐 수 없다. 암울했던 시절, 삼릉(미쓰비시) 공장이 있던 곳으로, 청년들의 징용 피신처가 되기도 한 곳이 바로 부평공원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가고 없지만, 흔적은 남는다. 역사로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함에도 무지함 속에서 뒤늦게야 깨달았다.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란 사실을 말이다. 부평공원을 찾거나 러닝을 할 때면 아픈 환청이 들려온다. 퍽박과 노역으로 시달렸을 선인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얼룩진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달리고 또 달린다. 다시는 이 땅이 치욕스러운 역사의 흔적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달리고 있다. 우리 동네 부평공원은 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삶의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원을 달린다. 이곳의 주인인 시민들도 공원을 찾는다면 한번쯤은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며 되새기는 것도 좋을 일이다. 나는 오늘도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유의 마음으로 즐겁게 달리고 또 달린다.

송도 커널워크의 주말 풍경(왼쪽).
운행을 재개한 월미바다열차가
파란 하늘을 가르며 승객을 실어나른다(오른쪽).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 주변 곳곳에 생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방역은 금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의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긴 터널 끝,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가게 운영 시간 완화를 시작으로 코로나19의 그늘을 걷어내고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다. 상가에선 대화의 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은 컴퓨터 앞이 아닌 교실에 마주 앉아 수업을 듣게 됐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일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시민들을 만났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현장 1. 위드 사장님

다시 달리는 ‘월미바다열차’ 승객들 함박웃음

지난 11월 5일 월미바다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중단한 지 4개월 만이다. 첫날 이용객은 모두 699명. 승객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 전 발열 체크·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완료한 뒤 열차에 올랐다. 소독제를 든 채 운행 2바퀴마다 손잡이 등 열차 곳곳을 꼼꼼하게 소독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3층 높이에서 평균 시속 9km의 속도로 달리는 모노레일 창밖, 월미공원의 울긋불긋한 단풍 위로 붉은 낙조가 내려앉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벽화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일로’ 옆을 지날 때는 너도나도 인증샷을 남기느라 분주했다.

서기원(45)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운영팀 차장은 “주말에는 하루에 1,100명의 승객이 이용했는데 다들 아이들처럼 좋아하셨다”며 “시민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활기 되살아나는 ‘월미테마파크’ 약간의 긴장감도

월미테마파크의 상인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한숨을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2014년부터 자리를 지킨 ‘미투커피’와 ‘달쭈꾸미’의 정승욱(47) 사장은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은 좋지만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불안한 것이다. ‘이경숙아줌마횃집’ 사장은 출입문에 ‘pm 10시까지’라고 적혀 있던 안내문을 ‘am 12시(자정까지)’라고 수정한 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하루에 한두 테이블로 간신히 버텼다”며 “영업시간이 늘어난 만큼 손님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월미바다열차 이용 안내

예매 방법 : 온라인(www.wolmiseatrain.or.kr)이나 인천e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

※ 정원의 60%인 28명까지만 탑승 가능,

10명 초과 단체 승객은 이용 불가능

이용 요금 : 어른 8,000원, 노인·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 4,000원

이용 시간 : 화~일요일(월요일 정기 휴무) 오전 10시~오후 6시

객석을 채울 관객을 기다리며 인천시립교향악단 80여 명의 단원들이 최종 리허설 무대에 올랐다.



티켓 예매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art.incheon.go.kr)
·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49 ☎ 032-427-8401

현장 2. 위드 관객

관객 맞을 준비에 들뜬
‘인천문화예술회관’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 인천시립교향악단 80여 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저녁에 있을 정기연주회 리허설이다. 이병욱(46) 예술감독은 “온라인이 아닌 실제 객석을 채운, 관객들의 호흡을 느끼며 공연을 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50% 이상이 채워졌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2월 12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무료 클래식 공연 ‘앙상블 오푸스-피아노 트리오의 음악 세계’를 연다. 인천시립무용단의 ‘만찬-진, 오귀’, ‘커피콘서트 X. 홍경민 스페셜 스테이지’, ‘문태국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등 다가오는 연말 공연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겐 20~30%의 할인을 제공한다.

현장 3. 위드 돌봄

다시, 다 함께 육아
‘아이사랑꿈터 1호점’

지난 11월 12일, 다시 문을 연 ‘아이사랑꿈터’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볼풀 놀이방, 미끄럼틀, 편백나무 놀이공간 등 연령대에 맞는 교구와 최신 장난감을 비치한 ‘아이들의 천국’이다. ‘서로 부대끼며 사귀는 일상’보다 ‘거리 두기 하는 코로나19 시대’를 먼저 경험한 아이들에게 이곳은 안락하고 안전한 첫 나들이 장소가 되어주었다.

김미영(33) 씨는 아직은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크지만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꼭 돌려주고 싶다. “아이사랑꿈터가 없었다면 집에만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곳은 늘 청결하고, 2시간씩 예약제로 운영되어 붐비지 않아 마음이 놓여요. 일반 키즈카페에 가면 초등학생까지 함께 몰려서 저희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는 걱정이 되곤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이사랑꿈터는 현재 7개 군·구에서 24개소를 운영 중이며, 12개소가 연말~연초 개소 목표로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평범한 일상’보다 ‘코로나19 시대’를 먼저 경험한 아이들에게 아이사랑꿈터는 안락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초로기 치매 대상자에겐 지속적인 돌봄이 절실하다.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사랑꿈터 이용 안내

이용 대상 : 만 0~5세 영·유아와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지점 : 인천 내 아이사랑꿈터 24개소
이용 방법 : 온라인 예약(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www.kkeumteo.or.kr) 및 전화 문의
※ 정원의 50%까지만 이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보호자)만 입장 가능
이용 시간 :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예약제)
☎ 032-440-2957

뇌건강학교 이용 안내

이용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이용 시설 : 북카페, 다양한 치매 예방 및 초기 치매 대상 프로그램·시설, 잔디 마당
이용 방법 : 전화 문의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이용 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인천시 미추홀구 승학길76번길 52-24,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 032-468-0921

행복이 가득한 치매안심학교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미추홀구 승학체육공원 앞에 자리한 ‘두뇌톡톡 뇌건강학교’에 알록달록 꽃이 피었다.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대상자의 사회생활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겨울 꽃 팬지를 앞마당에 심어 꽃밭을 완성한 것이다. 2018년 11월 개관한 이곳은 전국 최초 치매안심학교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초로기 치매 대상자의 사회생활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층 북카페에선 치매 환자가 커피를 내려준다. 지난 11월 15일 만난 한창규(63) 씨는 2018년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2020년 10월에 깨어났다. 청학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평생 유치원 아이들 사진 찍으며 착하게 살았는데, ‘기억의 병’에 걸렸다고 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곳에 오는 게 항상 기다려진다고. “할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고.” 세상의 편견과 상관없이 이곳에는 웃음, 사랑, 행복이 넘쳐흘렀다.

그립고 그리웠던 사랑방
‘도림그린빌1단지 경로당’

“다시 문을 열어 너무 좋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게 기쁨이죠. 이 공간이 노인들한테는 ‘코로나19 백신’이고 따끈한 사랑방이지 뭐예요.” 문을 닫았던 지난 세 달간 경로당을 쓰고 닦으며 친구들을 기다렸던 홍정자(77) 도림그린빌1단지 노인회장은 방역에 그전보다 더 신경을 쓴다. 소중한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해도 그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경로당이 좁아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취식도 불가능하다. 이용 시간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꼭 4시간이다. 그럼에도 노인들에겐 꿀 같은 시간으로 다가온다.



노인들에게 경로당은 ‘코로나19 백신’이고 따뜻한 사랑방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 기운이 솟는다.

현장 4. 위드 이웃

안전·방역 책임지는
‘신기시장 의용소방대’

신기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영종방앗간의 2대 사장인 김정민 (47) 씨는 신기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신기시장 의용소방대’ 대원이다. 그를 포함 24명의 작은 영웅들은 뚝뚝 뭉쳐 골목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다. 지난 2010년 십사일반 모은 600 만원으로 경트럭을 개조해 만든 꼬마 불자동차를 타고 문학 산 화재 진압, 울산 수해 복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갔다. 지난해부터는 소독약을 채워 시장 골목골목을 방역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몸이 고단한 건 괜찮아요. 이웃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요. 코로나 19가 준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소중함. 제가 한두 시간 덜 자는 대신 다른 분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한겨울 추위 녹이는
‘나눔의 현장’

대면 행사가 가능해지며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정나눔사랑봉사단은 지난 11월 17일 구월1동 삼보아파트경로당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강옥예(66) 씨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도 비대면으로 어르신 택배이 만들기 등 봉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자신을 기다릴 어르신들 걱정이 한 보따리였는데 일상 회복 단계가 되어 한 시름을 놓았다고 했다. “한겨울이 주거 취약 노인들에게는 정말 혹독해요. 코로나19가 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구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도 코로나19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 돌봄에 나섰다. 지난 11월 10일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빨간색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김장부대가 출동했다. 겨울 칼바람에도 아랑곳없이 1,6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이웃과 나눴다. 이날의 열기는 겨울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낼 것이다.



신기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중일 가게를 돌보고도 저녁이면 꼬마 불자동차에 소독약을 싣고 시장 곳곳을 달린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이웃을 위한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 함께 지켜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주요 방역 수칙

※ 2021년 11월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공통 기본 방역 수칙

- ✓ 실내 마스크 착용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클 등)
- ✓ 방역 수칙 게시·안내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일 3회 이상 소독

사적 모임 방역 수칙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 구성 가능,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시설별 방역 수칙

식당·카페

-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 밀집도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영화관·공연장

-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 밀집도 :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영화관은 취식 가능)

결혼식·돌잔치·장례식장

-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 밀집도 :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m²당 1명 준수해,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학원·독서실·PC방

-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 밀집도 : 좌석 한 칸 띄우기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PC방은 취식 가능)

유흥 시설·콜라텍·무도장

- ✓ 운영 시간 : 24시까지
-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 취식 가능 여부 : 유흥 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종교 시설

- ✓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 ✓ 밀집도 : 수용 인원의 50%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11월 19일 기준 성인의 93.2%가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소아청소년의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대상자 276만 8,836명 중 108만3,605명(39.1%)이 화이자 1차 접종을, 35만4,263명(12.8%)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나요?

- ✓ 델타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
- ✓ 성인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감염 위험
- ✓ 올해 7월,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3배 이상 급증(6월 664명 → 7월 2,151명)
- ✓ 감염으로 인한 입원, 중증 악화 위험 이외에도 격리 및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사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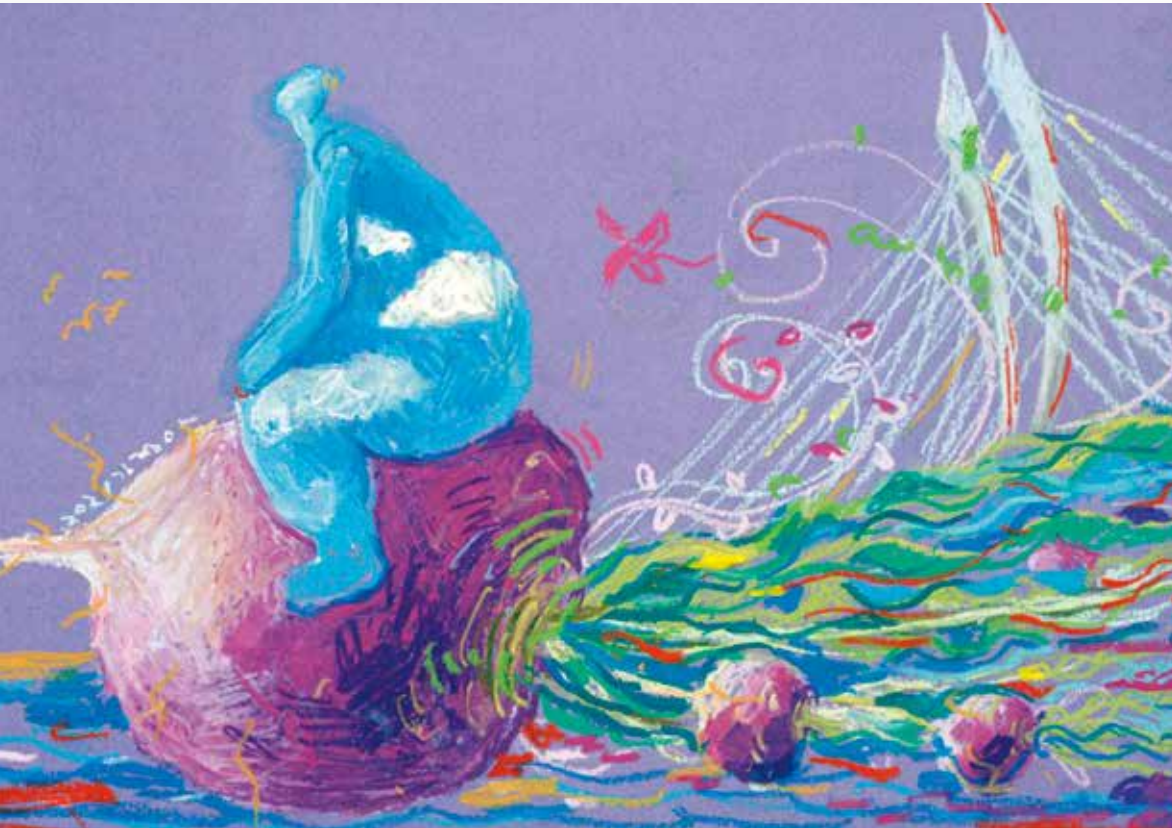
※ 2021년 11월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

보호막을 한 번 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꼭 받으세요

코로나19 돌파 감염을 방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60세 이상 고령층, 안센 백신 접종자 등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꼭 받으세요. 추가 접종 대상자는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 후(잔여 백신도 가능)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https://ncvr2.kdca.go.kr/>





벧길 따라 강화로 I, II
297 x 210(mm)_종이 위 채색_2021

한 해의 끝자락, 강화도 남쪽 끝으로 달려간다.
오늘 지는 노을은, 내일 태양으로 더 찬란히 떠오를 것이다.
그림 속 조형물이 벧길 위에서 올라탄 건 '강화 순무'

노을, 빛으로 떠오른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한 해가 저물어갈 즈음 강화도 가는 길과 다다른 남쪽 마을을 김정아 작가가 그렸다. 다난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내일 더 행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취재 영상 보기

강화도 남쪽, 해 지는 마을로



‘해님이 마을’에서 만난 이연숙 장화2리 이장.
화도면 최초의 여성 이장이다.



강화도 남단 바닷가에는 햇살보다 아름다운 노을이 내린다.

—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도 묵묵히 버티며 잘 살아냈다. 한 해의 끝자락, 강화도 남쪽 끝으로 달려간다. 그 섬, 그 바닷가엔 햇살보다 아름다운 노을이 내린다. 그 빛은 내일 태양으로 더 찬란히 떠오를 것이다.

강화도 화도면 장화리 ‘해님이 마을’. 바다와 땅, 삶이 만나 빚어낸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이연숙(60) 씨는 화도면 최초의 여성 이장이다. 41 대 34, 6년 전 일곱 표 차이로 처음 마을 대표가 됐다. 토박이도 남성도 아닌 그가 이장으로 선출되자, 작은 시골 동네는 잠시 술렁였다. 하지만 마을 일이라면 언제나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고,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따르고 때론 돌봐온 그다. 부녀회장 일도 6년이나 맡은 책임을 다해왔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IMF 파고에 휩쓸려 인천 도심에서 섬으로 흘러들어왔다. 언젠가 찾은 강화도 남단, 노을빛 불그름히 물든 바다가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 빛이 결국, 이 안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해님이 마을에서의 삶은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흐르듯 순조롭고 평화로웠다. 물론 섬 생활이 처음부터 평탄했던 건 아니다. 예서 나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는 이방인이었다. 낯선 사람으로 밀어낼수록 이웃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온전한 장화리 사람이다. 이장 아닌가. 어느 집 수저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훤히 꿰고 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 이장 잘한다’라고 칭찬할 때가 가장 기쁘요. 우리 마을에 100살에서 한 살이 모자란 최장수 어르신 이 계신데, ‘동네에서 제일 바쁜 이장, 건강하지?’라고 말을 건네곤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초겨울, 따스한 햇살 아래 그의 미소가 빛난다.



강화도 화도면 장화리 ‘해님이 마을’.
꾸밈없이 수수한 풍경, 그 안에선 시간도 더디게 흐른다.

고택을 지키는, 나이 든 어머니와 딸

— 해가 지려면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 마을을 감싸 도는 좁은 길을 따라 걷다, 고풍스러운 가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강화도 천석꾼 집안이었던 ‘주 진사 댁’이다. 이 집은 백범 김구 선생과 인연이 맞닿아 있다. ‘유완무의 제자인 강화 장곳에 있는 주운호 진사를 찾아갔다. 주진사는 백동전 4,000냥을 유 씨에게 보냈는데, 나는 그것을 온몸에 돌려 감고 서울로 왔다. 주진사의 집은 해변이었으므로 11월인데도 아직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었다. 또한 해산물이 풍족해 몇 날을 잘 지내고 왔다.’ - 김구 <백범일지> 중에서 1900년 김구가 탈옥 후 숨을 고르던 집엔, 오늘 주운호의 형 주운창의 첫째 증손자며느리 김옥동(91) 할머니가 산다. “우리 집은 빼대 있는 가문이야. 옆 동네 내리부터 강화읍까지 아우르는 천석꾼을 자랑했지. 그러니 독립운동 자금도 내놓지. 그 옛날 4,000냥이면 아주 큰돈이야. 재산이 있어 나라를 도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 대를 이어갈수록 살림은 기울었지만, 주씨 가문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풍요롭다.

이 집에서 머문 세월이, 자그마치 70년이다. 눈뜨고 잠들기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먼저 저세상으로 보낸 둘째 아들을 포함해 일곱 자식을 건사하며 바지런히 살아왔다. 스물둘에 시집와서 어느덧 강산이 아홉 번 변했다. 그 시절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다 간, 해님이 마을 ‘주 진사 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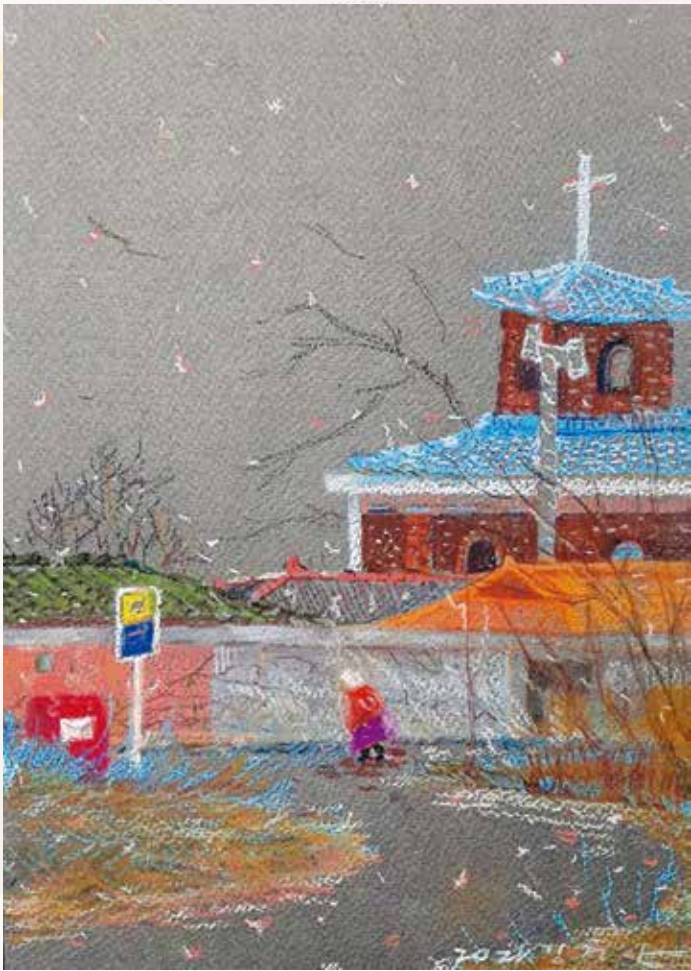


이 오래된 집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주운창의 첫째 증손자며느리 김옥동과 그의 막내딸 주향숙

유난히 큰 키에,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인한 어머니는 아이처럼 작고 연약해졌다. 허리가 휘고 주름이 깊게 패어 갔다. “우리 엄마 꽃분홍색 옷 입으니, 더 곱다. 참 예쁘네.” 오늘 아흔이 넘은 노모 곁은 막내딸이 지키고 있다. 주향숙(55) 씨는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 24년을 살다 2년 전 어머니 품으로 왔다.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온 삶일지라도 봄날은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소중해 보내기 아쉬워, 딸은 한사코 나이 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눈 감는 날까지,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사세요. 엄마, 우리 엄마.’ ‘백범 김구 선생이 다녀간, 강화 장곳 주 진사 댁’.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공간일 뿐이지만, 이 오래된 집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그 삶은 켜켜이 쌓이고 쌓여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할머니의 골목길 297 x 210(mm)_종이 위 채색_2021

해가 지려면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
마을을 감싸 도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
그 길엔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역사가 흐른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잘 살아냈다.
바다에 마음을 꺼내두고 시름을 날려보낸다.
갑자기 붙어닥친 어려움도,
세찬 바람 속 차가워진 기온도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다. ‘내일, 더 행복하기를’.

그리움으로 남은 섬의 시간

— 바로 옆 동네 내리. 노을빛은 장화리에 못 미치지만, 서쪽 바다답지 않게 항상 푸른 물결이 넘실거린다. 그 풍경에 반해 13년 전, 만수동에 사는 한 노부부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집을 지었다. 은퇴가 늦어지면서 지금은 아들 장시열(36) 씨가 공간을 보듬고 있다. 그는 4년 전, 이탈리아어로 일몰이라는 뜻의 ‘트라몬토Tramonto’라는 이름을 단 카페 문을 열었다. 강화도를 찾는 수많은 여행자가 이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쉬었다 간다.



내리의 카페 ‘트라몬토’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 부부.
멀리 부산에서 일곱 시간을 차로 달려 강화도로 왔다.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이 머물다 간 자리엔 웃음이 묻어나고 눈물이 배어난다.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온 부부가 찾았다. 석모도 온천 여행의 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부산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차로 일곱 시간을 달려온 긴 여행길,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즐겨 다녀요. 지역마다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인천 강화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은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이 맑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순수하고 따뜻해요.”

바다를 바라보는 부부는 말이 없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잘 살아냈다. 바다에 마음을 꺼내두고 따뜻한 차 한잔에 시름을 날려보낸다.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도, 세찬 바람 속 차가워진 기온도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다. ‘내일, 더 행복하기를’. 시시각각 빛을 달리하는 하늘, 그리움으로 남은 섬의 시간이 저물어간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해 질 무렵, 장화리 바닷가로 모인 이장과 동네 아낙들.
함께 어울리고 마음 나누며 사는 게, 이들 사는 즐거움이다.

시시각각
빛을 달리하는 하늘,
그리움으로 남은
섬의 시간이 저물어 간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 겨울, 섬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세상이 검기울고, 살갗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차가워졌다. 이장과 동네 아낙들이 장화리 바닷가로 모여든다. 모두 일곱 명. 마을 주민의 생일을 맞아 계모임이 있던 터였다. 나이 제일 많은 ‘왕언니’가 일흔일곱, 막내여도 예순둘. 돌아가면서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는 게 이들 사는 즐거움이다.

“다들 노인네인데, 여태 일하고 살아요. 오늘도 고구마 고르고 깨 털고, 모두 농사짓다가 모였어요. 하루라도 즐겁게 보내고, 내일 또 힘내서 일하자고.” “이게 잠깐이지, 어디 하루 쉬는 거냐? 난 오후 다섯 시나 돼서야, 겨우 밭에서 집으로 왔어.”

최창란(71) 씨와 박영순(77) 씨의 오가는 말속엔 웃음이 섞여도 삶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이 마을에서는 나고 자랐든 멀리서 왔든, 나이가 몇이고, 무슨 별이를 하든 중요치 않다.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눈다. 최 씨는 4년 전, 푸른 물결에 봉긋 솟은 ‘병아리 섬’에 반해 멀리 일산에서 왔다. 연정흠(71) 씨는 스물세 살 때 마음 조이며 강화읍에서 시집왔다. 도시에서 산골짜기로 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건 그때도 지금도 바다다. 큰언니 박 씨는 이 동네 토박이다. 가무락을 쓰레질 하듯 담고, 새우며 송어, 낙지, 꽃게… 바다에 없는 게 없던 시절부터 섬 아낙의 삶을 짊어지고 살았다. 평생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었지만, 그 덕에 자식 다섯 다 밥해 먹고 공부도 가르쳤다. 여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다.

해가 진다. 노을 진 수평선 사이로 섬들이 아스라하다. 이내 검은 바다가 출렁인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 또 내일 더 나은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림 김정아

인천 출신의 청년 작가.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지역 예술 강사로 세상과 소통하고, 꾸준히 작품을 그리며 따스한 시선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강화도 레지던시’에 참여해 작업한 결과물을 올해 ‘Strong 강 Fire 화 Road 길’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전시했다. 그 흐름을 이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7일까지 ‘엄마와 딸이 만드는 두 번째 여정’이라는 주제로 ‘인천 스페로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다.

수고했어 2021, 장화리 297 x 210(mm)_종이 위 채색_2021
“강화도 노을도 보고 마니산 기를 받아서,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또 내일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굿모닝인천> 애독자들과의 송년 대담

홍예문 위 풍광 좋은 언덕에 올라앉은 서담재에서 지난 11월 16일 <굿모닝인천> 독자들과 이른 송년회를 가졌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 종합 매거진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바람을 듣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낸 그들의 소회와 밝아오는 2022년 새해의 개인적인 소망에도 귀 기울여봤다. 송년 대담엔 독자 윤암전(79) 씨와 김태연(35) 씨가 초대됐다.

진행 김진국 최은정 | 정리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굿모닝인천>이 송년을 맞아 '애독자' 송년 대담을 진행했다. 활짝 웃고 있는 독자 윤암전(사진 왼쪽) 씨와 김태연 씨

김진국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평소 독자 엽서 등을 통해 관심과 애정을 적극 표현해 주신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윤암전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김태연 반갑습니다. 꼭 오고 싶어서 조퇴하고 왔습니다.

김진국 <굿모닝인천>을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윤암전 8년 전인 2013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지하철역에서 <굿모닝인천>을 들고 왔는데, 처음 보자마자 표지부터 마음에 쏙 들더라구요. 이름부터 신선하잖아요. “굿모닝~ 인천!” 표지 상단에 ‘굿모닝인천’이라는 제호가 쓰여 있고 하단에 한자로 ‘仁川’이라고 써 있었죠. 책장을 펼쳤는데 그 이름처럼 옛것과 현대의 것을 이어주는 내용이 가득해 흡족했어요.

김태연 저는 10년 전쯤 대학생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기 구독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저도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함께 읽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항상 좋은 건 저 같은 인천 토박이도 잘 모르는 인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예요.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던 인천의 역사, 문화부터 다양한 행사 공모전 정보까지 읽을거리가 너무 많아요.

최은정 <굿모닝인천>을 애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윤암전 ‘인천’이라는 큰 숲을 이루는 작고 소중한 존재들을 보여주잖아요.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이야기를 어쩔 그리 잘 찾아내는지. 재미있어서 작은 글씨까지 빼놓지 않고 읽어요.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제 방에 50권쯤 모아뒀는데, 제가 보낸 글이 실린 호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잡지에 실릴 수 있고, 언제든 추억할 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인천 시민의 잡지죠.

김태연 <굿모닝인천>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어요. 매번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책 뒤편의 정보란을 보고 봉사 활동을 신청하곤 했는데, 인천시영어마을 활동, 인천아시안게임 외국어 자원봉사 활동 등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후 인천시자원봉사센



윤암전 씨는 <굿모닝인천>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가끔 꺼내 읽는다. 그가 처음 만난 <굿모닝인천> 2013년 10월호 표지

터 수기공모전에서 당선도 되고. <굿모닝인천>에 제 삶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아서 챙겨 읽게 됐어요.

김진국 더 열심히 뛰고, 깊이 있게 인천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궁금합니다.

윤암전 지난 10월호에 실린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최 선생이 ‘평생 작곡한 악보, 지휘봉 등을 고향인 인천에 기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약한 편인데, 그 책을 읽고 누군가는 생각이 트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모닝인천>이 시민 의식을 높여주고 문화 의식을 심어 줍니다.

김태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관련 기사를 매번 챙겨 읽는데, 11월호의 ‘인천 기업들의 환경 캠페인’ 기사가 좋았어요.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플로깅을 실천한다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녁에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갈 때 비닐봉지를 챙겨 가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게 됐어요. 이번에도 <굿모닝인천>이 제 삶을 변화시킨 계기였네요.



김태연(사진 왼쪽), 윤암전 독자가 <굿모닝인천> 편집자(사진 뒷모습)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은정 <굿모닝인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윤암전 인천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다 열려 있으니 역사, 문화가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인물 이야기가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건강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동 학대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주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지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웃음)

김태연 시민과 <굿모닝인천> 양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굿모닝인천>을 읽고 시책에 관심을 가지며 이웃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닫고 책장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겁니다. <굿모닝인천> 편집부에서는 젊은 세대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김진국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요. 올해 두 분은 어떠셨나요?

윤암전 197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요. 햇살이 잘 드는 방에서 좋아하는 글을 읽고 쓰며 코로나19 시국을 이겨냈습니다. 늘 곁에서 친구가 되어준 <굿모닝인천> 고마워요.

김태연 작년에 결혼해서 배우자와 새로운 삶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에 ‘건강하고 무탈하게, 행복하자!’를 2021년의 슬로건으로 정했었고요. 목표했던 대로 이룬 것 같아요. 가족 모두 건강하기에 행복합니다.

최은정 내년 소망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암전 온 가족의 건강이 첫째지요. 지금처럼 내년에도 토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소래산을 산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부 욕심, 일 욕심 많은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김태연 내년 최우선 목표도 역시 ‘배우자와의 행복’이구요. 한 가지 더, 누나가 결혼 7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내년에 출산 예정이에요.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한단 말도 전하고 싶어요. 저희도 아기가 생기면 좋겠고요.

김진국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윤암전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민이 합심하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연 내년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텐데 우리 시가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자분들 모두 언제, 어디에서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져서 행사도 많아지고 봉사 활동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모닝인천>에 그런 소식이 더 많이 실리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어요.

김진국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굿모닝인천>은 새해에도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인천 사람들의 삶’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폭넓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인천>을 모으고 있다는
윤암전 독자



<굿모닝인천>이 인천에서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김태연 독자

Thank you

<굿모닝인천> 5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1994년 <내고장 인천>으로 시작, 지난 27년 동안 인천의 가치와 인천 사람들의 삶을 시민에게 전한 <굿모닝인천>이 5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접 발로 뛰어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호까지 통권 336호를 펴낸 <굿모닝인천>에는 새롭고도 역사적인 인천의 수많은 공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빛깔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탄하며 다가가게 되는 168개의 보석 같은 섬 등 인천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올해로 제31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에서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상이다. <굿모닝인천>은 참신한 기획과 인천의 정체성이 깃든 깊이 있는 콘텐츠, 편안하고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의 역사 품은 인천의 학교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아홉 번째 등곳길을 따라 초겨울 고즈넉한 문학동으로 간다. 승학산 자락 아래,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인천의 정기(精氣) 품은 인천문학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을 권효린(12) 학생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문학초등학교에 객사와 동헌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관아 모습

문화재 정기 품은 100년의 역사

인천문학초등학교(이하 문학초)로 가는 길. 거리거리 낙엽에 늦가을 정취가 물씬하다. 인천도호부관아 앞에 다다르자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진짜’를 만나고 싶다면 발걸음을 더 옮겨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인천도호부관아는 재현물이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의 흔적은 문학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가 대단한 학교구나 생각했죠. 내가 사는 인천의 귀중한 문화재를 매일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인천도호부관아는 조선 시대 지방 관청 건물이다. 1982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로 지정됐다가 2019년 10월 7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문학초에 보존되어 있는 건물은 객사와 동헌의 일부다. 객사는 1460년에, 동헌은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인천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화도진도’를 근거로 문학초 인근 부지에 별도로 인천도호부관아를 복원했다.

“선생님께 부평도호부관아도 부평초등학교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옛날 인천을 관할했던

관청 두 개가 모두 초등학교 안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린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도 같아요.”

문학초는 1918년 부천공립학교로 개교했다. 이후 1946년 인천문학공립학교로 개명됐는데, 1950년 인천도호부관아 자리에 문학초의 교사(校舍)가 지어지며 오랜 동행을 시작했다.

1918년 개교한 학교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다.



늦가을에 만나는 노란색 눈꽃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분다. 그 바람에 문학초 교정에 노란 눈꽃이 흩날린다. 권효린 학생이 커다란 은행나무 앞에 섰다. 수려하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가지가 이색적인 나무의 나이는 650살이 넘었다. 오랜 세월을 버텨낸 만큼 높이 25m, 가슴 높이 둘레 6.8m, 수관 폭 20m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나무는 학교를 지키고 인천은 나무를 지킨다. 은행나무는 현재 인천 보호수 4-3-1호로 지정된 귀한 몸이다.

“학교의 교목도 은행나무예요. 650살이 넘도록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하지만 학교 아이들에게 이 나무는 그저 친구예요.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거든요.” 승학산 아래 자리한 문학초에는 나무가 많기로 유명하다. 자연을 벗 삼아 공부하고 뛰놀 수 있다는 건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교정 곳곳 아기자기한 산책로도 나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텃밭도 조성되어 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사계절이 모두 예쁘지만 이맘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색색의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과 그 안에 숨은 듯 자리한 인천도호부관이 건물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요.” ‘백년의 숨결 넘어 무한한 꿈과 희망의 문학 동산’.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개교 100주년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다. 그렇게 학교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움트는 포근하고 든든한 동산이 되어주었다.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650년 된 은행나무.
인천 보호수 4-3-1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관 건물에 전시된 다양한 상장과 상패들이
학교의 오랜 역사와 저력을 말해준다.

도전으로 성장하는 인천의 명문

또래에 비해 큰 키와 긴 팔다리를 가진 한 여학생이 운동장을 달린다. 권효린 학생이다. 문학초는 과거 씨름으로 유명했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씨름 명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육상부가 명맥을 잇고 있다. 권효린 학생을 비롯한 육상부 선수들도 출중한 기량을 바탕으로 선전 중이다.

“매일 오전과 오후 두 번 훈련해요. 학교에서는 간단히 몸을 푸는 정도고 진짜 훈련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문학초 육상부의 진짜 훈련은 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가까운 거리라 산책하듯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선수들에게 실제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의 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문학초 육상부 학생들은 잘 정비된 트랙을 달리고 또 달리며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준비한다.

“‘문학’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학교 운동장처럼 친근해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면 해요.”

권효린 학생은 전교 회장의 중책도 맡고 있다. 처음에는 떨어지는 게 두려워 선거에 나갈까 말까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과녁을 맞히려면 일단 화살을 쏘아야 한다고 했다. 용기와 도전을 무기 삼아 출마했고 당당히 회장으로 선출됐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학교에서의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죠. 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학교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훗날 학교의 이름을 빛내자고요.”



학교 정문에 세워진 개교 100주년 기념비



김구라



최근 늦둥이 딸을 본 김구라는 “성실한 자세로 창의적 방송을 하며 딸을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구라가 지난 11월 2일 일산 MBC 드라마센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 사람으로 성장한 경험으로 창의적 방송 만들어갈 터”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웃지 않았지만 웃는 마음이 느껴졌다. 튀는 입담과 능청스러운 표정의 김구라가 아닌, 뒤늦게 딸을 본 늦둥이 아빠의 기쁨이 전염돼 왔다.

“제 나이도 있고 소중하게 생긴 자식이라 아이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김구라는 “아이가 생기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실한 자세로 창의적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일산 MBC 드라마센터에서 만난 김구라(51, 본명 김현동)는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날이라 바쁘다고 했다. 나이와 신분, 직업을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자웅을 겨루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물론 복면가왕뿐만이 아니다. 라디오스타, 동상이몽 등 TV 프로그램에서부터 유튜브 채널인 ‘빠꾸기 골프 TV’에 이르기까지 김구라는 지금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김구라는 방송 진행 도중 출연자 가운데 인천 사람이 나오면 반가움을 숨기지 않는다. 아 인천?! 그럼 열외. 그러다 보니 출연자들 가운데 “선배님 저 인천이 고향입니다”라며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만큼 고향 인천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 이런 것들이 다 저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대학교도 인천에서 나왔으니 오리지널 인천 사람인 거죠.”

김구라가 태어난 곳은 부평구 갈산동이다. 그의 부친이 한국지엠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에 다녔는데 사원 아파트가 갈산동에 있었던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열 살 때까지 갈산동에 살며 부평북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집 주변엔 공장들만 즐비했고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계양산이 가까이 있어 여름엔 개구리를 잡았고, 가을엔 잠자리 잡으러 오르곤 했지요.”

놀이터를 계양산에서 주안, 석바위로 바꾼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70년대 후반이다.

“저희 집이 간석동 송림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주안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지금의 시청 후문 쪽으로 해서 한 시간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석바위 시장에서 떡볶이와 도넛을 사 먹고 전자오락실을 들락거리며 김구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당시 인베이터라는 오락기가 있었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였지요.” 그런 김구라가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팝송 감상’이다. “이모가 주안에 살았는데 음악 방송 들으려고 라디오를 끼고 살았거든요. 밖에서 놀다가 이모를 찾아가면 어김없이 팝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슴이 똥똥 울리고 때로는 감미롭기 그지없었지요. 김기덕, 김광환,

취재 영상 보기



황인용, 원종배 같은 디제이 아저씨들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멋있던지, 나도 커서 디제이가 돼야겠다 생각하곤 했지요.”

스웨덴의 4인조 그룹 아바, 케니 로저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블론디, 베트 미들러 등 그는 당시를 풍미한 팝가수들의 음악에 푹 빠져 지냈다. 자연스럽게 오디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석바위에 전축을 파는 인켈 대리점이 있었어요. 거길 자주 갔는데 전축 구경도 구경이었지만 <팝피 엠투>라는 팝송 전문 잡지를 무료로 가져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안에 팝스타 소식도 있고 빌보드 차트, 인기 팝송 악보도 실려 있었지요. 저처럼 음악 좋아하던 학생들에게 최고의 잡지였어요.”

주안과 석바위를 오가며 팝송을 즐겨 듣던 김구라는 구월중학교로 진학한다. 5층짜리 주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던 구월중학교는 당시 한창 건설 중이었다. “제가 구월중 3회 졸업생인데 체육 시간이면 공사장으로 가서 일을 했지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섰지만 당시만 해도 구월동은 허허벌판이었다. 시청이나 중앙도서관 창문을 열면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



김구라가 일산 MBC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학교 인근 희망백화점을 찾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새 학기가 되면 노트와 가방을 사러 희망백화점을 찾곤 했어요. 가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가기도 했지요.” 제물포고등학교로 진학한 김구라의 활동 반경은 동인천까지 확장된다.

“제가 놀고먹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극장도 많이 다녔어요. 주안에 있는 중앙극장, 경동 애관극장을 많이 갔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반에서 10등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비결은 바로 팝송이었다. “가끔 시청 옆 중앙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곤 했어요. 팝송을 좋아하다 보니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성적이 그리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1, 2등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김구라는 고2 때 학급 반장을 맡는다. 이때 제물포고에 선 하나의 미신 아닌 미신이 떠돌고 있었으니 대학 입시와 연관된 것이었다.

“저희 학교와 담 하나로 인일여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을 넘어 인일여고생들이 쓰는 방식을 가져오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소문이 짹악 퍼져 있었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고등학생인데다 대입 수험생이던 김구라는 친구들과 작전 끝에 월담을 감행한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인일여고로 가서 방식을 훔쳐 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다시 담을 넘어오다 선생님한테 ‘딱’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좋겠어요.”
고향 인천이 방송인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됐다고 말하는 김구라.

“야 이 XX야, 반장이라는 놈이 할 짓이 없어 여학교 담을 넘어 다녀?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교도 가겠다!” ‘불꽃싸다구’를 맞은 김구라는 이틀간의 정학 처분을 받는다.

반 친구들이 집단 사고를 친 기억도 있다. “제고가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학교이다 보니 커닝 방지를 위해 학년을 뒤섞어 시험을 봤는데 어느 날 저희 반 아이들이 집단 커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 때 염경환과 지상렬도 같은 반이었어요.”

집단 커닝 사실은 매년 시험이 끝나면 쓰는 반성문 때문에 발각됐다. 순진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형들이 커닝을 하는 것 같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제고는 커닝을 하다 발각되면 퇴학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숫자가 27명이나 되다 보니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같은 반이던 염경환, 지상렬은 어땠을까.

“경환이는 비교적 암전했고 상렬이는 개그맨 되겠다고 끼를 부렸어요. 제가 개그맨 된 뒤에 상렬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개그맨 될 수 있냐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는 김구라의 얼굴엔 인천의 명문인 제물포고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났다.

유쾌한 ‘알개시대’를 보낸 김구라는 인하대 영문과 89학번으로 진학하며 방송인의 꿈을 실현한다. 술·담배는 안 하는 대신 당구장은 즐겨 찾았다. 제고 시절엔 신포동 특실당구장, 오색당구장이라는 곳을 많이 다녔고 인하대 시절엔 후문의 당구장에 자주 들락거렸다.

특히 웃기지는 못했지만,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던 김구라는 대학생이던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 시험에 덜컥 합격한다. 기쁨도 잠시, 이후 10년간 무명 생활을 이어갈 줄이야.

“1999년엔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더이상은 방송 못하겠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김구라는 그러나 이를 앓다물고 무명 시절을 견뎌냈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중이다. 일산에 살지만 어머니가 계신 산곡동을 가끔 찾는다는 김구라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맥도 잘 쥔고 방송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구나 그런 얘길 들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향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제 고향 인천을 사랑합니다. 인천 파이팅!”



12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평생학습 작품 발표회 12월 2일~9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다솜	김진숙 개인전 12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아트페스타(햇빛, 달빛, 별빛) 12월 3일~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2021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작품 전시회 12월 15일~22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2021 현대미술의 조명展 12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맑고 푸른 환경 전시회 12월 15일~22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민화보고전 12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 전국 순회전 12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민주화운동 사료전 12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미술협회 사생작가회전 12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미추홀전시실
	제5회 인천원로작가전 12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6회 푸른쪽빛희 정기전 12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글스 아티스트전 12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이달의 공연·박람회

04 토 뮤지컬 ‘헤드윅’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일~5일 오후 2시, 7시 R석 11만원, S석 9만9,000원 ① 1588-2341	08 수 2021 커피콘서트 X 홍경민 ‘스페셜 스테이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2,000원 ① 1588-2341	09 목 2021 K-뷰티&코스메틱 쇼 송도컨벤시아 2, 3홀 9일~11일 5,000원(사전 등록 무료) ① 02-6000-6693, 6716
박에스더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엘리 윈터 페스티벌 : 문태국&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5만원 ① 1588-2341	10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9회 정기연주회 ‘뉴 골든에이지 IV 베토벤 합창’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① 1588-2341
05 일 양윤희 피아노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국악을 두른 비보잉! ‘미스터리우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무료 ① 032-510-1150	11 토 제2회 누구나 인천중창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① 032-529-2882



엘리 윈터 페스티벌 : 피아니스트 안인모 ‘클래식이 알고 싶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① 1588-2341	15 수 개항장 뮤직맵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760-6404	25 토 2021 이승환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5일 오후 5시 26일 오후 4시 R석 13만2,000원, S석 11만원 ① 02-333-9009
토요 스테이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V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3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① 032-453-7700	18 토 이은결 ‘THE ILLUSION’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8일 오후 3시, 7시 30분 19일 오후 1시, 5시 30분 R석 8만8,000원, S석 7만7,000원 ① 1566-6551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공연 송도컨벤시아 3, 4홀 오후 1시, 6시 R석 12만1,000원, S석 11만원 ① 1588-6180
2021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송도컨벤시아 4홀 11일~12일 무료 ① 032-260-0672	2021 아트센터인천 송년음악회 – 서울시향&오스모 벤스케 ‘합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① 032-453-7700	26 일 김서현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12 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30분, 7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① 070-4618-6012	21 화 인천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① 1588-2341	27 월 컬투 정찬우가 만든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8~31일 오후 7시 30분 전석 4만5,000원 ① 010-3633-7857
엘리 윈터 페스티벌 : 앙상블 오푸스 ‘피아노 트리오의 음악 세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① 1588-2341	아스터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특별 공연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① 010-4036-1383	류지원과 이호찬의 앙상블 블랭크 ‘Vivaldi and Furrer’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8시 전석 3만원 ① 02-6404-3569
조수미&이 무지치 실내악단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3만원 ① 032-453-7700	23 목 뮤지컬 ‘알사탕’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3일~24일 오후 2시, 4시 25일~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5만원 ① 02-323-7738	29 수 휴(休) 콘서트 III ‘몽니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760-6404
14 화 배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9회 송년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R석 10만원, S석 5만원 ① 02-3487-3019	24 금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8시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① 070-4190-1289	30 목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0일 오후 4시, 7시 3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① 02-747-9988



겨울, 노래 그리고 춤

위드 코로나, 이제 다시 일상이다. 행복으로 가득할 2022년을 고대하며 연말 공연을 준비했다. 이 겨울을 맞이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의 춤을 추자.

겨울을 맞이하다 얼리 윈터 페스티벌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얼리 윈터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는 클래식 실내악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이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로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한다.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클래식 해설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안인모도 ‘낭만 살롱’을 주제로 낭만 시대 작곡가들의 연주와 해설을 들려주며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양상블 오푸스-피아노 트리오의 음악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특별한 연주회다.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얼리 윈터 페스티벌로 겨울 한파를 녹이자.

문태국&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석 5만원
피아니스트 안인모-클래식이 알고 싶다 : 12월 11일 오후 5시, 전석 1만원
양상블 오푸스-피아노 트리오의 음악 세계 : 12월 12일 오후 5시, 초대문의 : 1588-2341



희망을 노래하다 아듀 2021, 캐럴링

인천시립합창단이 따뜻한 하모니로 세상을 밝힌다. 평화가 그리워진 시대를 맞아해 20세기 초 크리스마스 명곡들, 팝 스타일로 편곡한 캐럴과 함께 시민들을 찾아온다. 1부는 20세기 초 프랑스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 작품들을 노래한다. 프랑시스 풀랑의 ‘네 곡의 크리스마스 모테트’, 에드워드 엘가의 ‘A Christmas Greeting’ 등을 통해 성탄절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그려낸다. 2부에서는 팝과 가스펠 등 다양한 스타일로 편곡된 캐럴과 상임 작곡가 조혜영이 편곡한 ‘온 땅에 평화가 있으라’를 노래한다.

일시 :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문의 : 1588-2341

기쁨의 춤을 추다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인천시립무용단의 상설 기획 공연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춤담은 엄선된 우리춤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춤의 깊은(潭) 매력을 전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談)를 나누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거장의 구월동 나들이’로, 무용극 창시자 송범의 작품 세계를 무대 위에 펼친다. 한국 근·현대 무용의 역사 그 자체라 일컬어지는 무용가 송범은 초대 국립무용단장으로 약 30년간 재임하며 한국 무용의 공연사를 수놓았다. 특히 이번 무대는 송범의 직계 제자인 예술감독 윤성주가 직접 선별한 레퍼토리로 구성해 그야말로 송범 춤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일시 : 12월 18일 오후 5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1만원 문의 : 1588-2341



“인천 홍보도 금빛 과녁 명중처럼 하겠습니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양궁’ 하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다. 1984년 LA올림픽 이래 수십 년간 한국 양궁은 단 한 차례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올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은 5개의 메달 가운데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양궁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그 한가운데 인천 출신 장민희(22, 인천대) 선수가 있었다.

금의환향한 장 선수가 얼마 전 또 하나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로 ‘인천시 홍보대사’ 메달이다. 지난 11월 10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는 “고향 인천이 한국 양궁처럼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 선수는 앞으로 2년간 우리 시를 대표해 인천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활동을 펼친다. 체육 행사와 축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그의 몫이다.

장민희가 활시위를 처음 당겨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다. “갈월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키가 컸거든요. 주변의 권유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학원을 안 다닐 수 있겠구나 피가 생겨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일중과 인일여고로 진학하며 탄탄한 양궁선수로 성장한 인천 토박이 장 선수는 인천대에 진학한 뒤 비로소 빛을 본다.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인천대 개교 이래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이자 학교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다. 얼마나 훈련을 했기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새벽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쏘고 뛰고를 반복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의 경우 하루 많게는 300발씩 쏜 것 같아요.”

장 선수는 “올림픽 첫 출전이라 긴장은 했지만 세 명이 마음을 맞추어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치렀다”며 “저희들끼리 순서도 바뀌보고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정하며 연습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채영(25, 현대모비스), 안산(20, 광주여대)과 한 팀으로 출전, 정학

도가 높고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 세 번째 공사로 활약했다. 장민희는 금메달 결정전 1세트에서 마지막 사수로 10점을 쏘며 55대 54, 1점 차로 상대 팀의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3세트에선 그의 화살이 9점 과녁에 들어가면서 한국 양궁은 금메달을 확정 짓는다.

“제가 본래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닌데 막상 올림픽 경기장에 서보니 생각보다는 긴장이 덜 되었어요. 선수촌에서 많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독일 속담처럼 꾸준한 연습이 그를 ‘로빈 후드’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국제대회에 입상하는 것보다 태극마크 달기가 더 어렵다는 한국 양궁 속에서 장민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년 9월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옮겨올은 선발되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민희는 내년부터 인천시청 양궁팀에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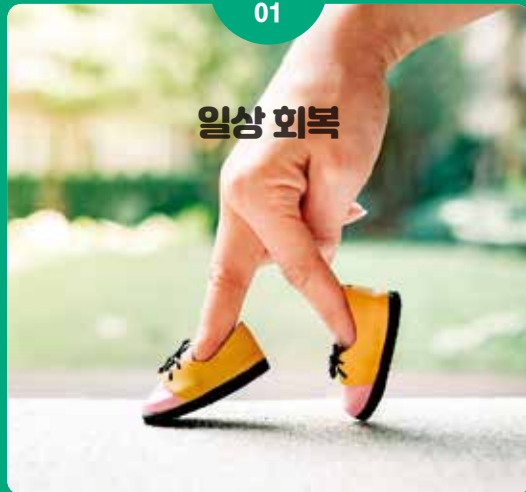


장민희 선수가 지난 11월 10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활짝 웃고 있다.

◦ IMAGE NEWS ◦

01

일상 회복



#인천시 일상 회복·민생 경제 지원 대책 발표
#민생과 방역 #투 트랙 전략 #시민 일상 회복
#경제 회복 속도

02

경제 회복



#총 1조1,624억원 규모 지원
#소비 지원 5,430억원
#피해 업종 특별 지원 2,101억원
#일자리·생활 안정 지원 4,093억원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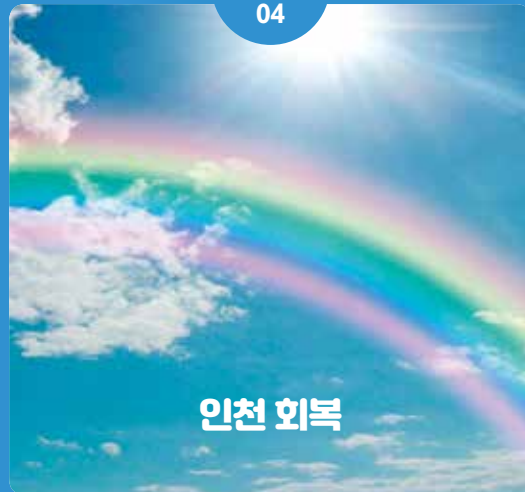
방역 회복



#지속 가능한 일상 방역 태세 유지 원칙으로 전환
#검사와 방역 철저 #백신 접종률 강화
#안정적 치료 체계 확보 노력

04

인천 회복



#방역 모범 도시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 선도 도시로
#시민의 협조 #배려와 응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회복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가 강화도 교동면 상용리에 복원됐습니다.
- + 인천 내항 1부두에 위치한 옛 세관 창고가 역사를 담은 ‘인천세관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천세관 역사관, 옛 세관 창고를 본뜬 포토존 등이 마련돼 근대 개항사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서남극 게츠 빙붕(Gets Ice Shelf)에 연결된 빙하 중 하나에 최근 ‘인천’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빙하가 녹지 않도록 300만 인천 시민 모두의 탄소 중립 실천이 절실합니다.
- + 택시비도 10% 캐시백이 되는 ‘e음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 우리 시가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 + 내년 3월부터 인천 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EWS BRIEF ◦

인천의 유망 마이스 스타트업 ‘거침없이 스타트업!’



인천 마이스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데모데이’가 지난 11월 25일 인천MICE지원센터에서 열렸다. 2021년 인천 MICE 창업지원사업 공모전’에서 선발된 25개 업체 중 중간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발된 6개사가 전문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업 모델 등 각자의 경쟁력을 공개한 행사이다.

스타트업 발굴·육성... ‘미래 마이스 주역으로 쑥쑥’

시는 앞서 지난 4월 ‘인천 MICE 창업지원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25개 기업을 1차 선정했다. 선발된 25개사에 1차 사업화자금 500만원과 스타트업 워크숍, 기초 창업교육,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담임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사업 진척도와 사업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8월, 6개 우수업체를 최종 선발했다. 이곳에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기업별 심화 컨설팅, 창업실무교육, 성과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 바 있다.

인천의 유망 기업과 투자자 ‘한자리에’

데모데이에 참여한 6개 우수업체는 △만만한녀석들(모듈형 목공 부스 개발) △메클라우즈(휴먼&로봇 아바타 활용 전시 관람) △어라운드유(온·오프라인 통합 마이스 플랫폼) △무브(모빌리티 플랫폼) △링크(화상회의 스튜디오) △와블즈(통번역 매칭)이며 전문 투자기업인 로건벤처스, 벤처박스 등 6개사의 투자기업이 함께해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만한녀석들(대표 장철호)은 마이스 행사 종료 후 버려지는 목공 부스를 대신한 모듈형 목공 부스를 제작해 폐기물 발생을 제로화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메클라우즈(대표 김성룡)는 로봇 아바타를 활용한 원격 전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마이스 스타트업이 인천에 뿌리내리고 인천 마이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40-1502

수도권 첫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 2024년 개관



수도권 최초 국립 해양문화 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월미도에 건립된다.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일원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박물관의 외관은 인근 월미산의 능선과 바다의 물결을 이어주는 곡선 디자인으로 활력 넘치는 해양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내부엔 대강당, 상설 및 기획전시 공간, 수장고 및 관람객의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67억원이 투입된다. 박물관 개관으로 약 99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평균 약 120만 명(주 6일 운영 기준 하루 평균 4,000명 내외)의 방문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22

택시비도 10% 캐시백, 인천시 ‘e음택시’ 시동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를 살리고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인천e음에서 e음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e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 없이 인천e음 메인 화면에 있는 ‘e음택시 버튼’을 클릭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캐시백 1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100년 넘는 인천세관 창고, 역사 담은 공원으로 재탄생

인천 내항 1부두에 자리한 옛 세관 창고 부지(4,395m²)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이 들어섰다. 인천세관 역사공원에는 인천세관 역사관, 인천시·세관 상징 조형물, 잔디광장, 옛 세관 창고를 본뜬 포토존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됐다. 특히 ‘인천세관 역사관’은 옛 세관 창고 1개동을 활용해 1883년 인천해관의 설립부터 광복 전후까지 근대 개항사의 중심이었던 인천세관 역사를 재조명해 수입물품에 대한 징수기관과 더불어 우편, 검역, 기상관측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세관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11년 건립된 세관 창고는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舊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된 바 있다.

시 재생콘텐츠과 032-458-7323



백령공항 예타 선정, 2027년엔 비행기 타고 백령도 간다

2027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인천시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3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일일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웅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25만4,000m²에 1,7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1,200m(폭 30m),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타(평가) 분석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4년), 실시계획 승인(2024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2025년 건설공사에 착공해 2027년 개항이 목표다. 시 항공과 032-440-4832

한글 점자 훈맹정음 창안,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가 강화 교동면 상용리에 복원됐다. 강화군은 부지면적 2,244m²에 송암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벽과 홍상, 녹지공간이 포함된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입구에는 1926년에 탄생한 훈맹정음의 부조물이 새겨져 있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비밀리에 ‘조선 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해 한글 점자 연구에 매진했으며, 그로부터 3년 후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에 폭 10m의 해안도로를 조성하고 생가 인근의 교동 교회와 마라손물 온천도 관광지로 꾸밀 계획이다.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77

공사장 가림막, 시민 아이디어로 아름답게 변신

우리 시가 ‘아름다운 인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사장 가림막과 가설 울타리에 입혀 아름답게 변신시킬 계획이다. ‘환경특별시, 인천’과 ‘함께 만드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인천을 다양한 색감과 그래픽으로 표현한 1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Be. Incheon(인천이 되는 모든 것)’ △최우수상은 ‘깨끗한 수돗물과 친환경 자원순환의 인천을 표현’ △우수상은 ‘Interesting Figure of 인천’이다. 대상 수상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인천을 다양한 색감과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을 통해 공사 현장이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이미지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공사장 가림막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시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94

시민과 함께한 ‘2021 시·공·초·월 협치 한마당’ 성료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벽을 넘자’는 의미를 담은 시·공·초·월 협치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1월 22일부터 닷새간 협치 문화 안착과 확산을 위한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2기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출범과 인천협치포럼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유회 △인천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토론회 등을 열었다. 시정 전반에 협치 문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했던 제1기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가 출범했고, 시민위원장으로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인천협치포럼에서는 인천 협치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협치를 통해 시민과 행정의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했다.

시 협치인권담당관실 032-440-3392

우체국 쇼핑몰에 ‘인천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개설

우체국 쇼핑몰에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이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쇼핑몰에서 제품 홍보와 판매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2019년 말 제물포역사 1층(북광장)에 개소해 사회적경제기업 58개 기업, 414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3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군 테마노선 개방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 시민에게 열렸다. 이번 개방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위해 이뤄졌다. 강화군 노선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신규 테마 노선으로 △강화전쟁박물관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대룡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다. 철책선 도보길 약 1.5km를 포함

해 총 61.1km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이동 중에는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강화군 노선은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 3일(금·토·일요일), 1일 2차례(09:00, 14:00) 운영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 확인자(3일 이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www.dmzwalk.com)와 걷기, 자전거 여행 앱 ‘두루누리’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시 도서관과 032-440-4994

남극에 ‘인천’이라는 이름의 빙하 생겨

서남극 게츠 빙봉(Gets Ice Shelf)에 연결된 빙하 중 하나에 최근 ‘인천’의 이름이 붙여졌다. 영국 남극지명위원회(Antarctic Place-names Committee)는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 빙하 9개에 그동안 주요 기후회의를 개최한 도시 9곳 이름을 붙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서쪽의 5개 빙하(Land, Hull, Venzke, Berry, Devicq)를 제외한 9개 빙하에 새 이름이 붙은 것이다. 빙하 ‘인천’은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를 기념해 명명됐다. 게츠 빙봉은 길이 650km, 폭 110km(가장 넓은 폭 기준)로 아문젠해 연안 빙봉 중 가장 크다. 올해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출간된 논문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위성 관측 결과 지난 25년 동안 약 3,150억 t의 얼음이 이 지역에서 소실됐으며, 이는 전 세계 해수면을 약 0.9mm 높일 수 있는 양이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79

새해부터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지원

우리 시가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시급은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에 시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부터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시 육아지원과 032-440-2954

올해 최고의 기술인 ‘2021 미추홀명장’ 선정

우리 시가 올해 미추홀명장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명은 표면처리 분야 조용진(46) 씨와 제과제빵 분야 강민호(46) 씨다. 표면처리 분야 조용진 씨는 지난 2016년 표면처리 기능장을 획득한 경력 19년의 전문가로 아연 주조 다이캐스팅 분야 및 니켈·크롬도금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미추홀명장에 선정됐다. 제과제빵 분야 강민호 씨는 소프트크림치즈잼 바게트, 표고버섯을 이용한 천연발효빵, 천연발효 사워크림을 이용한 초코파이 제조방법 특허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021년도 미추홀명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 역사 내 위치한 ‘인천 명장의 전당’에 등재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42

청라시티타워 분담금 합의…사업 탄력

청라호수공원에 세워질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시티타워(주)가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여m² 부지에 높이 448m의 초고층 타워와 복합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최상층에 톱플로어와 스카이드크, 도시와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고층 전망대, 경사로 스카이워크, 하늘을 나는 듯한 포토존 글라스플로어, 다양한 쇼핑과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갖추게 된다.

IFEZ 영종청라계획과 032-453-7613

인천 섬 주민,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내년 3월부터 인천 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25개 섬에는 약 1만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은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 도서관과 032-440-4982

◦ COUNCIL NEWS ◦

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가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분야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의회는 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지난 11월 22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 시 정부 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의회와 시는 연 2회 정기 인사 교류를 실시해 인력 균형 배치 및 양 기관 간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단기 교육훈련은 의회가 자체 실시하고, 7·9급 공채시험과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은 시에서 통합 추진해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인천광역시의회가 11월 22일 의원 및 의회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2년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명수 지도과 광역2팀장은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관련 사례,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선거 중립 의무),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의회 방송 스튜디오’ 개소식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에 시민 소통 및 적극적인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의회는 의정 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회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지난 11월 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회 방송 스튜디오는 창고로 사용하던 의회 본관 지하 1층 유허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원 인터뷰 및 영상 메시지 등을 촬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방송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방송 환경 및 HD 방송 시스템 인프라 조성으로 효율적인 의원 인터뷰 및 영상 메시지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튜디오 내부에는 팔미도, 인천대교 등 인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이용한 롤스크린 설치는 물론이고 각종 소품과 가구 등을 활용한 인터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따른 맞춤형 영상 촬영 시스템도 구축했다.

2021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2021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광역시 공영 장례 지원 조례’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 입법과 의정 활동 분야로 100건의 사례들이 제출됐고, 행정안전부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30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 후 최종 14건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본선 현장 발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해 최종 행정

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한 시의회의 ‘인천광역시 공영 장례 지원 조례’에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 ‘오감 행정 현장 감사’ 화제

전국적으로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한 ‘오감 행정 현장 감사’를 실시해 화제다. 오감 행정이란 현장 속으로, 학생 걸으며, 학교 안으로, 민원 깊숙이, 실행 위주 등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1월 12일 오전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고, 교육장들과 함께 송담초 부근 학생 통학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들과 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에 교육위는 보행 녹도 설치, 드롭 존 설치, 십자형 횡단보도 설치, 화물차 통행 제한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함박마을 도시 재생’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상호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 다양성 정책연구회’가 함박마을 도시 재생 관련 토론회를 지난 11월 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박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 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자,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고려인 주민 장애인 대표, 고려인상인회 회장, 연수1동주민자치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함박마을은 ‘안전한 우리 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라는 사업명으로,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은 국내 다문화마을 첫 뉴딜 사업으로, 고려인과 함께하는 상생교류소 조성, 세계 음식 문화 공간 마련, 도

시 재생 다문화치세움소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함박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통합 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도시외교2.0연구회,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가 ‘환경특별시 인천 도시 브랜드화 가능성 및 동아시아 도시 외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로 수행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용역의 과업은 시가 표방한 자원순환 정책, 2050 탄소 중립 및 인천형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춘 새로운 ‘환경특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선도 도시 인천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환경 도시 외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찾는 데 있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원순환 주요 선도 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일본 가미카쓰정, 인도 델리 등의 모범 사례를 통한 인천시의 선도 도시로서의 ‘Selling Point(유도 전략)’안과 잠재적 네트워크 구축안 등이 제시됐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앓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싹포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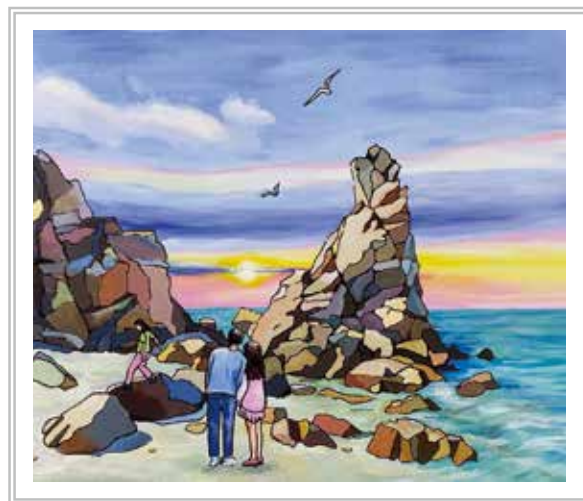
석양에 물든 선녀바위



김민진 작가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인상주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인천의 젊은 여성 작가다. 따뜻하고 다양한 색감의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한다. 지역 공공 미술 벽화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했으며, 미술 작가, 벽화가, 강사로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김민진 작가의 색채 가이드

을왕리 선녀바위가 붉게 물들어 간다. 그 옛날,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슬픈 전설이 서려 있어 더 붉게 타들어 가는 듯하다. 저녁 무렵 물이 빠지면 선녀바위를 넘어 해변으로 갈 수 있다. 반대편 해변은 해수욕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바위들로 가득한 해변은 저마다의 삶으로 1년을 채워온 우리 모습을 닮았다. 해넘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오만 가지 빛깔을 뽐내낸다. 선녀의 모습을 닮은 커다란 바위가 고혹적인 자태를 뽐낸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로 가는 길목, 아름다운 낙조를 닮은 희망의 미래가 펼쳐지길 소망해 본다.

▷ 11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동수 부평구 경인로



안건신 서구 독정로



유다운 부평구 원적로



이선정 계양구 주부토로



조한나 부평구 굴포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12월 23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이 그린 인천

동심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코로나19를 잊게 한 소소하지만 확실했던 행복. 올 한 해 ‘컬러링 인천’에 보내주신 시민 작가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채로운 시민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밑바탕을 내어주신 인천 작가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그간 보내주신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인천이 그린 인천. 2022년,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덕적도
유연희
부평구 경원대로



고려산
김학진
미추홀구 낙섬동로



수봉산
엄현경
서구 청라라임로

아암도
김진남
연수구 해송로



월미산
김성범
미추홀구 경원대로



백령도
이현정
남동구 구월로



남동유수지
김용원
부평구 길주로



무의도
박미경
남동구 포구로



강화도
김갑수
연수구 먼우금로



광명항
김정진
미추홀구 수봉로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마을 세무사를 찾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제4기 마을 세무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 : 12월 3일
위촉 기간 :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 ㉣ 032-440-8702 ㉢ ldukjae@korea.kr
참고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 ㉠ 032-440-2564

02 박물관 할인쿠폰 드려요

문화N티켓에서 ‘박물관 관람 및 프로그램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참여 박물관 : 문화N티켓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박물관 대상
티켓 예매 기간 : 12월 5일까지
관람 기간 : 12월 31일까지
쿠폰 발급 : 1인당 쿠폰 10매
문의 : 문화N티켓 ㉠ 1688-2220

03 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우리 시가 질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개량을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 2022년 1월 검침분(2월 고지서분)부터 10% 인상
활용 : 하수 처리 시설 운영, 노후 하수관 정비,
하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전액 사용
문의 : 시 하수과 ㉠ 032-440-3610

04 추억의 낭만 거리로 오세요

인천 최대의 변화가였던
동인천 일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제4회 동인천 낭만시장’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간 : 12월 26일까지
운영 시간 : 오후 1시~10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내용 : 지역 특화 경관 조명,
뉴트로 포토존, 낭만 티비,
낭만 아.나.바.다.
참고 : ㉡ www.romancemarket.co.kr



05 지진 안전 인증 마크 지원합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22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자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지진에 견디어내는 능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 마크 부착
신청 기간 :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지원 내용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및
인증 명판 부착
신청 방법 : ㉢ jungjs82@korea.kr
제출 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 성능 평가 견적서
참고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자연재난과 ㉠ 032-440-3369

06 ‘친구따라 제비간다’ 공연 무대에

연수문화재단에서 ‘친구따라 제비간다(feat. 흥보가)’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연수아트홀
출연진 : 움직임팩토리
입장료 : 전석 무료
*㉡ www.yeonsu.go.kr/culture(사전 예매 필수),
티켓 오픈 12월 2일 오후 2시
공연 내용 : 제비의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낸 ‘흥보가’,
자메이카 태생의 여러 리듬을 판소리에 녹여 선보이는
‘스카판소리’ 무용극
문의 :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07 스마트시티 인천 사업에 참여하세요

우리 시가 ‘2022년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과 시행자 등을 공모합니다.

사업 기간 : 2022~2024년(총 3년)
사업비 :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시비)
신청 자격 : 공공 시행자, 민간 기업,
민간 기업+시행자(민간, 공공) 등
제출 기간 :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장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
문의 :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 ㉠ 032-440-8928

08 여성의광장 체력관리센터 이용 제한

여성의광장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체력관리센터의
이용 제한을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증빙 구분	비고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별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자	1. COOV앱 등 전자증명서 (QR 확인) 2. 종이 증명서	휴대폰 확인 및 보건소 발급
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자	1.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2.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보건소 발급 (유효 기간 :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되 는 날의 자정까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보건소 발급
	완치자		

문의 : 여성의광장 ㉠ 032-440-8986

09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참여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 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 용도 :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사회 혁신 활동에
필요한 공동 소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 비용
및 공사 비용 등
융자 한도 : 10억원
융자 기간 : 15년(3년 거치 12년 상환)
융자 이율 : 연 3.14%
(2021년 8월 기준, 6개월 변동 금리 적용)
신청 기간 : 12월 1일~2022년 1월 7일 오후 4시까지
신청 방법 : ㉢ dldbals1228@korea.kr 또는 우편
공모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044-205-3418
접수 관련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 032-440-4914

10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우리 시가 환경특별시로 나아가고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구매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빌라, 공동주택 등
지원 수량 : 가구(가정) 1세대당 1대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자원순환 부서에 문의
문의 : 시 자원순환과 ㉠ 032-440-3574

11 유유기지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시가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청년 공간인 유유기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 :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 내용 : 청년 공간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 공모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기준 : 1인당 1명칭 응모 가능
응모 방법 : ㉡ www.inuu.kr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각 1부
결과 발표 : 12월 29일
시상 내역 : 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1명 20만원,
장려 10명 내외 각각 5만원
문의 : 시 청년정책과 ㉠ 032-440-2888

12 지방세,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사전에 신청한 본인의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납부 월의 23일 자동 납부)

- 장점
- 체납 및 가산금 걱정 없는 지방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시 150원,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 공제
- 신청 방법 : ④ etax.incheon.go.kr
- 대상 카드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KB국민, 광주, 수협
- * 이용 제한 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13 문화가 흐르는 12월

연수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1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Musical In The Garden’

공연 일시 :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공연팀 : Brandon Chamber Ensemble

‘안골마을의 나른한 오후’

공연 일시 :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공연팀 : 피아니스트 김경민(또모 아티스트)

관람 : 연수문화원 유튜브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창작동아리 기획 전시]

전시 기간 : 12월 17일~30일

전시 장소 : 청학문화센터 1층 전시실

전시 내용 : 연수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 창작 동아리의 기획 전시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14 책과 함께 겨울나기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 인문학 행사를 소개합니다.

[미추홀도서관]

비대면 - 하반기 테마 인문 고전 ‘언어의 인간’

일시 : 12월 2일~23일(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대상 : 인천 시민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40-6664

비대면 - 다문화 체험 교실 ‘세계 악기 배우기’

일시 : 12월 4일 오후 2시~3시 30분

대상 : 초등학교 15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40-6643

비대면 - 찾아라,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일시 : 12월 11일~12일

대상 : 인천 시민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40-6664

[청라호수도서관]

비대면 - 소일 작가와의 만남 ‘누구나 쉽게 쓰는 에세이’

일시 : 12월 2일~23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대상 : 인천 시민 15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① 032-563-8044

[영종하늘도서관]

비대면 - 눈꽃 마녀와 크리스마스

일시 : 12월 11일 오후 1시~2시

대상 : 도서관 이용자

문의 : 영종하늘도서관 ① 032-746-9139

[마전도서관]

비대면 - 문해력 특강, 그림책으로 놀면 달라집니다

일시 : 12월 9일 오전 10시~11시 30분

대상 : 성인

문의 : 마전도서관 ① 032-590-2833



15 직접 보고, 듣고, 만들며 배워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상설체험교실을 다시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 : 민화, 길쌈, 도자기, 전통 인쇄, 청동기, 탁본

* 6개 프로그램 1주 단위 순환 운영

* 6개 프로그램을 모두 체험하면 소정의 선물 증정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신청 방법 : 박물관 방문 선착순 접수(회당 6명, 교육비 무료)

운영 지침

- 매일 코로나19 방역 소독 실시

- 체험수업(40분), 체험교실 및 체험교구 소독 및 환기(20분)

- 마스크 착용 필수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① 032-440-6750

새 음악

도시를 수놓는 음악,
시티팝 컴필레이션 : 인천 편

인천 시티팝
음원 발매



우리 시가 주최하고 루비레코드가 주관한 ‘2021 인천 시티팝’ 수상자들의 음악이 음원으로 발매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인천 시티팝 창작 음악제에는 총 150여 개 팀이 참가했고, 비대면 온라인 예선과 본선 경연을 거쳐 곡 부문 3팀(QUDO, 부평구청, Songland), 가창 부문 3팀(홍세환, Fancy, 천경진), 싱어 송라이터 부문 3팀(해달, 민송, TENOCLK)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중 첫 번째로 QUDO×홍세환의 ‘I’m Alright’와 밴드 TENOCLK의 ‘West City’가 11월 21일 INCHEON CITY POP Vol. 1로 발매됐다. 이어 11월 28일에는 Vol. 2와 Vol. 3 음원 2곡이 추가로 공개됐다. 시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의 도시 일상을 그린, 대중성을 겸비한 6곡을 제작해 공연과 영상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① 032-440-3979

새 책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

212쪽, 비매품
퍼낸 곳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숨결과 고려, 조선 등 우리나라 전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성지’이다. 최근 들어 강화도는 맛있는 먹거리, 즐거운 놀거리, 편히 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넘쳐나는 섬으로 꽃피어났다.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는 강화도 곳곳에 스며 있는 역사를 재밌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으며 부록으로 맛집, 분위기 좋은 카페, 캠핑장, 쾌적한 숙박시설 등을 실었다.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강화도 여행을 할 수 있다.

인천, 사람

바다 땅 숨 삶,
환경특별시 사람들

168쪽, 비매품
퍼낸 곳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사람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을 듣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 발행한 <인천, 사람>에 이은 두 번째 인천시민 인터뷰 모음집, <인천, 사람-바다 땅 숨 삶, 환경특별시 사람들>을 선보인다. 바다, 땅, 숨, 삶을 테마로 친환경 의식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바다를 경건히 대하고, 땅을 대하는 손길은 따뜻하며, 숨 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연을 지키는 삶을 특별히 자랑하지 않는 ‘환경특별시 인천’ 사람들. 모두 16명의 이야기가 진솔하고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자’는 강렬한 메시지로 가슴에 느낌표를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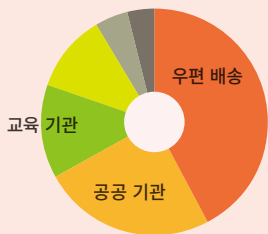
책은 도서관,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합니다. 포털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정성 담아 꼭꼭 눌러쓴 엽서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열어보며 큰 관심과 사랑을 새겼습니다. 지면을 통해 독자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인천광역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대상 <굿모닝인천> 독자 및 인천 시민 | 참여자 수 811명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 | 조사 기간 2021년 1월호~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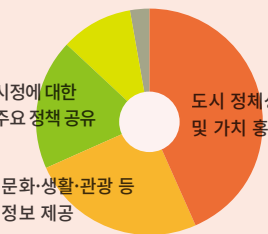
Q1 <굿모닝인천> 접촉 경로



- 우편 배송 42.3%
- 공공 기관 24.9%
- 교육 기관 13.3%
- 대중교통 시설 11.1%
- 온라인 매체 4.7%
- 기타 3.7%

* <굿모닝인천>을 접한 경로는 우편 배송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 기관(24.9%) 및 교육 기관(13.3%)을 통해 주로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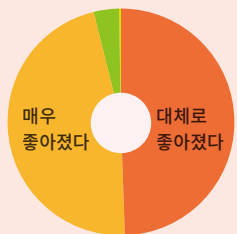
Q2 <굿모닝인천> 매체 성격



-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43.6%
-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24.9%
- 시민 대상 시정 주요 정책 공유 매체 18.5%
-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10.3%
-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정보 공유 매체 2.7%

* 모든 성별과 연령별 응답자가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매체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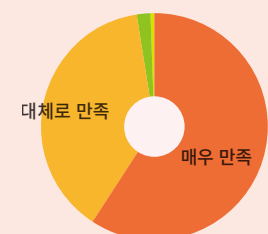
Q3 인천 인식 변화



- 대체로 좋아졌다 49.5%
- 매우 좋아졌다 46.7%
- 특별한 변화가 없다 3.6%
- 대체로 안 좋아졌다 0.2%

*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10명 중 9.6명이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40대 이상의 인식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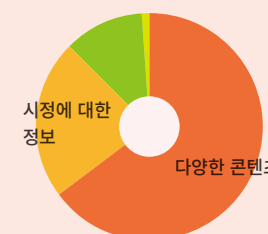
Q4-1 <굿모닝인천>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59.2%
- 대체로 만족한다 38.3%
- 보통이다 2.1%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0.4%

* 응답자의 10명 중 9.7명이 <굿모닝인천>에 만족했습니다. 이 중 5.9명은 매우 만족했으며,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에서는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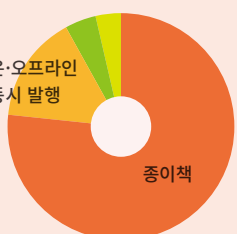
Q4-2 만족하는 이유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64.9%
-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22.8%
-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11.4%
- 기타 0.9%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64.9%)'가 <굿모닝인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인천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Q5 발행 형태 선호도



- 종이책으로 발행하는 오프라인 형태 76.8%
-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동시 발행 15.3%
-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되, 오프라인 동시 발행 4.3%
- e-북 또는 웹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형태 3.6%

* 응답자의 약 77%가 e-북이나 웹진보다는 종이책으로 발행되는 것을 선호했으며, 15.3%는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동시 발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추가·보강됐으면
하는 내용

퀴즈, 게임 등 독자 참여 이벤트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콘텐츠
전입 세대를 위한 생활 정보
건강 또는 음식 관련 코너

타 지역 사람들을 위한 관광 정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발행
시의성 있는 시책 정보
평범한 시민 인터뷰

2021 보문사의 마애관음좌상



‘올 한 해도
열심히 사느라
수고 많았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미소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강화도의 형제 섬인 석모도 ‘보문사’에 가면 반드시 찾아야 할 곳이 ‘마애관음좌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이다. 낙가산 중턱 눈썹바위 아래 비스듬히 경사진 바위 표면에 돌을 깎고 쪼아 새긴 마애관음좌상은 높이 9.2m, 너비 3.3m의 거석 불상이다.

마애관음좌상이 이 자리에 오신 건 1928년이다. 당시 주지였던 배선주 스님은 금강산 ‘표훈사’ 이화응 주지 스님과 함께 이 거대한 불상을 조성한다. 배선주 스님의 첫째 아들인 배정만(91) 옹은 “아버지가 주지로 부임한 뒤 매일 눈썹바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구상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화응 선사와 함께 바위에 부처님을 새기기 시작해 3년 만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석공의 손으로만 새긴 것”이라며 “석공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석모도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애관음좌상은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두 손을 모아 정병淨瓶을 받쳐 든 채 연화 대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턱까지 내려온 긴 귀와 두툼한 코에선 부처님의 자비가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다. 마애관음좌상을 덮고 있는 거석은 ‘눈썹바위’다. 마치 고인돌의 덮개돌처럼 생긴 이 바위는 사람의 눈썹처럼 생겼다 해서 눈썹바위란 이름이 붙었다.

목청이 좋고 불경을 잘 외웠던 배선주 스님이 보문사 주지로 오자 보문사는 신도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출생인 배선주 스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6살에 전등사로 출가했다. 이후 의정부 ‘원통암’으로 갔다가 35살 되던 해 당시 전등사 말사였던 보문사 주지로 부임했다.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 도량’으로 알려졌다. 신라 선덕여왕 4년(635) 회정 대사가 창건한 ‘1400년 고찰’ 보문사에선 석굴 법당 ‘나한전’, ‘와불전’ 등을 만날 수 있다. 나한전엔 22구의 나한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나한상은 신라 시대 석모도에 살았던 고 씨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낸 걸 모신 것이라 전한다.

석굴 법당 왼편 위쪽 ‘와불전’엔 거대한 부처님이 누워 있다. 너비 13.5m, 높이 2m의 와불은 열반하는 부처의 누워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손의 모양, 옷과 주름 등이 섬세하게 조각된 와불상은 대웅전 왼편에 있던 큰바위 ‘천인대’를 깎아 새긴 부처님이다. 보문사 창건 당시 인도의 한 큰스님이 불상을 모시고 날아와 법회를 연 장소로 ‘1,000명은 능히 앉을 수 있다’는 뜻에서 천인대란 이름이 붙여졌다. 1980년대 조성을 시작해 2009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소서. 어느 가을날, 마애관음좌상 앞에서 소원 성취를 빌며 절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간절해 보인다. 대중들의 기도에 일일이 화답하는 것처럼 마애관음좌상의 미소가 초겨울 하늘에 번져 나간다.

인천 지명

자줏빛 제비섬이었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의 본래 이름은 자연도紫燕島다. 자줏빛 또는 보랏빛 제비섬이라는 뜻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섬에 대해 “자연도는 인천도호부 서쪽 27리 되는 곳에 있으며 주위가 55리이고 목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연도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고려 인종 때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 사신 서긍이 귀국 뒤에 여러 가지 견문을 모아 엮어낸 <고려도경>의 기록대로 ‘경원정 맞은편 섬에 제비가 많이 날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경원정은 고려 때 중국의 사신이나 상인들이 오가는 길에 묵었던 객사로 지금의 구읍베타 주변에 있었다. 구읍 일대는 현재 영종도 본 섬과 이어져 하나의 섬이지만, 원래는 조선 후기까지도 자연도에 딸린 조그만 섬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서긍이 ‘경원정 맞은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영종도는 자연도 앞에 조그만 섬으로 떨어져 따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 효종 때 군사적 필요에 따라 화성군



남양면에 있던 군사기지 영종진이 이 조그만 섬으로 옮겨 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연도와 다리를 놓아 연결하고는 다리 이름을 만세교라 불렀다. 이때 남양에서 옮겨 온 영종진이 이곳에 자리 잡은 뒤로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연도는 차츰 영종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갔고, 마침내는 그 원래의 이름을 밀어내고 이제 제 이름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만세교 역시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며, 그 뒤로 계속된 두 섬 사이의 매립에 따라 영종진이 있던 섬과 자연도는 이어지게 됐다.



1902. 12. 22
제1차 하와이 이민, 제물포항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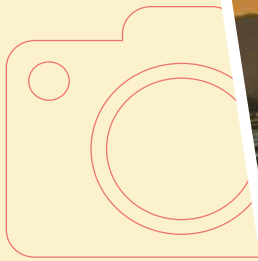
1902년 12월 22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승인 아래 해외 이민자들을 하와이로 보낸 날이다. 이민자를 태운 일본 배 현해환은 제물포항을 떠나 12월 24일 나가사키항에 도착했고, 검역과 신체검사, 예방 접종을 받은 후 1903년 1월 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는 상선 갤럭시호로 갈아탔다. 이때 승선 이민자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19명을 제외한 102명이었으며, 이들이 최초의 이민자로 기록되었다. 1월 13일 갤럭시호는 하와이에 입항했고, 사탕수수밭이나 파인애플 농장으로 배속되어 삶을 이어갔다.

인천 소사

그때, 12월의 인천은...

- | | |
|--------------|----------------------------|
| 1957. 12. 23 | 동인천역사 준공 |
| 1975. 12. 20 | 인천종합어시장 개장 |
| 1993. 12. 03 |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창간 축하회 |
| 1995. 12. 30 | 수인선 협궤열차, 수원행 운행을 마지막으로 폐선 |
| 2001. 12. 02 | 인천문학경기장 개장 |
| 2004. 12. 01 | 인천문화재단 설립 |
| 2005. 12. 27 | 인천관광공사 설립 |
| 2007. 12. 12 | 인천신항 착공 |

안녕, 2021



사연 박수지(연수구 송도동)

사진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남편을 따라 계양대교 위에 올랐습니다. 푸르렀던 하늘이 서서히 노을로 번지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온한 물길도 덩달아 주홍빛 하늘색을 담았습니다. 수줍은 듯 산등성이 아래로 숨어드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저 해가 올해의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집어삼켜주기를, 내일 다시 떠오를 해가 기쁨과 희망만을 품고 세상을 환히 밝혀주기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올해와 같은 소망을 그렸습니다. 다행인 건, 그 소망이 내년에는 이뤄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얼룩졌던 2021년이, 2022년에는 저 아름다운 석양을 닮은 희망의 빛으로 물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우리의 2021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01

JANUARY



02

FEBRUARY



03

MARCH



04

APRIL



05

MAY



06

JUNE



07

JULY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굿모닝인천 2021

내년을 준비하다
더 밝고 건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소 건강한 한 해를 꿈꾸며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계양경기장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① 의정대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① 만석동
새해 아침 신년 특집 대담
정책 문화 2021 새해 달라지는 정책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자원순환 실천하는 사람들
자원순환 Q&A ①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⑥ 정석항공과학교등학교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① 김홍탁 키보이스 리더
1월의 도시전 송암미술관 문화 특별전 외
이미지 뉴스 탄소 중립
시장 뉴스 '일화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본격 추진 외
의회 뉴스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 외
컬러링 인천 덕적도
인포 박스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외
인터뷰 김영승 시민
인천 문화재를 찾아서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소소한 인천 이야기 참외전거리 외
仁生 사진관 2021년, 희망 싹고 열차 출발합니다
인천의 아침 짜장면 탄생 130년
포토 에세이 2021 신축년 해돋이

인천 미소 자원순환 선도 도시를 응원합니다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수봉산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② 개항장
환경특별시 인천 코로나시대, 자원순환 실천법
자원순환 Q&A ②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도시디자인 인천의 색
희망 인천 소래포구 재개장
인천 VS 세계 도시 ⑨ 음악 도시 인천 VS 텍사스 오스틴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⑨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공무원이 간다 현철왕 민호준 소방경
정책 문화 인천만의 장애인 정책들
문화 포커스 ① 비대면 문화 정보 ② 대면 문화 정보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지원
시장 뉴스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외
의회 뉴스 2021년 시민 중심 의정 시작 외
컬러링 인천 아람도
인포 박스 우리가 멀어져야 코로나19가 멀어집니다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② 일본우선주식회사
소소한 인천 이야기 상호현 외
仁生 사진관 잠시만, 안녕
인천의 아침 우현 고유섭과 인천 미술
포토 에세이 함박눈 속 설맞이

인천 미소 시민으로 특별한 환경특별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송현시장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③ 영종도
새로운 봄 등교 수업 확대
자원순환 음식물 쓰레기
환경특별시 인천 쓰레기 독립
자원순환 Q&A ③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유와 선진국 사례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⑩ 송도고등학교
문화 미림극장, 전국 최초 치매 영화관 운영
특집 인천시 맞춤형 핀셋 지원 현장을 가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② 김봉길 전 인천Utd 감독
정책 문화 아이돌봄 사업
음악으로 듣는 근대 역사 '인천근대음악열전' 발매
문화 포커스 비대면 역사 교육
이미지 뉴스 서민 중심 복지 행정
시장 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외
의회 뉴스 부평시장 화재 초기 대응 시민 표창 수여 외
컬러링 인천 강화도 고려산
인포 박스 당신의 아이디어로 인천이 더 좋아집니다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③ 인천우체국
소소한 인천사 화도전 외
仁生 사진관 우리, 다시, 날다
인천의 아침 김란사와 유관순, 그리고 인천 여성
포토 에세이 102년 전, 3월 활어장터

인천 미소 희망의 불씨가 되주세요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서구 공동체 라디오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④ 남촌도림동
푸른 인천 인천의 큰 나무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자원순환 Q&A ④ 자체적인 폐기를 처리 시설 설치 이유
교통특별시 인천 시민 위한 편리한 교통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⑩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인천 공무원이 간다 김진기 월미공원사업소장
정책 문화 시 돌봄전차 서비스
시민의 목소리 오디오북 참여 시민
문화 캘린더 인천시립무용단 특별 기획 '새봄새춤' 외
문화 포커스 봄맞이 공연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대응
시장 뉴스 수수산업 선도도시 인천 선언 외
의회 뉴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4월 말까지 외
컬러링 인천 수봉산
인포 박스 시민의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④ 전등사
소소한 인천사 굴포전 외
仁生 사진관 언제나, 봄
인천의 아침 개관 75주년, 인천시립박물관 가는 길
포토 에세이 천연기념물 제562호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 미소 제로 웨이스트 인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바다리 현행방 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인천아빠 육아전사단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⑤ 월미도
자원순환 가전·가구 재사용
자원순환 Q&A ⑤ 인천에코랜드 VS 수도권 매립지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⑫ 인천하늘고등학교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③ 가수 송창식
건강한 인천 생활체육
정책 문화 확 달라지는 버스정류소
문화 캘린더 인천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Movie+ing' 외
문화 중인 ② 인천 영화
문화 중인 ② 작품 40점 기증한 고정수 조각가
이미지 뉴스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시장 뉴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좋아졌네' 외
의회 뉴스 인천시의회, 정책 소통의 장 마련 외
컬러링 인천 월미산
인포 박스 그 시절, 동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⑤ 홍예문
소소한 인천사 열우물 외
仁生 사진관 다섯 배의 행복
인천의 아침 53항쟁 35주년, 인천의 봄
포토 에세이 유채꽃이 필 때면

인천 미소 지면으로 전해지는 정성과 노력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계양산 장미원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⑥ 교동도
인천 공감 시대와 세대를 잇는 힘, 개항로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환경특별시 인천 업사이클
자원순환 Q&A ⑥ 인천에코랜드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⑬ 인천박문초등학교
인천 공무원이 간다 상수도사업본부 송진우
기획 맑고 깨끗한 인천 수돗물
정책 문화 노인 일자리
문화 캘린더 전래동화 뮤지컬 '효자호랑이' 외
문화 중인 사진기자 박근현의 사진첩
이미지 뉴스 어린이 인천
시장 뉴스 인천시 독립 40년을 축하해 주세요 외
의회 뉴스 자치입법 참여전터 개설 외
컬러링 인천 무의도
인포 박스 인천시 독립 40년 축하 공모전 개최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⑥ 부평도호부관아
소소한 인천사 호구포 외
仁生 사진관 우연히 찾아온 행복
인천의 아침 조미선정 150주년, 수자기 필력이다
포토 에세이 광성보

인천 미소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굿모닝인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애플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⑦ 송학동 옛집과 플라타너스
역사 공간 미리 가 본 '인천시민애플'
화보 '인천 독립 40년' 인천의 하늘 땅 바다
특집 인천직할시부터 환경특별시까지
희망 인천 민선 7기 3주년 성과
자원순환 기획 NO! 1회용품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⑭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정책 문화 인천 독립 40년
시민 시장 장달순 송학동 옛 시장 관사 돌보미
문화 캘린더 '춤추는 도시들' 외
이미지 뉴스 인천 독립 40년
시장 뉴스 부평 캠프마켓 10년 로드맵 발표 외
의회 뉴스 올에 첫 정례회, 추경 및 조직 개편안 심의 외
컬러링 인천 백령도
인포 박스 취임 성공, 랜선으로 지원합니다 외
인터뷰 인천시 홍보대사 이동국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⑦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소소한 인천사 미추홀과 인주 그리고 '인천' 외
仁生 사진관 뜻밖의 행복
인천의 아침 지난날은 40년, 가야 할 40년
포토 에세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송학동 '인천시민애플'

인천 미소 다시 찾을 인천을 고대하며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신현동 회화나무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⑧ 연안부두
여름 특집 도시와 섬의 별빛
여행 특집 이색·이국적인 인천7경
자원순환 기획 플렉스제로 캠페인 시즌 2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⑮ 부평여자고등학교
8-15 광복절 특집 '백범 김구'를 도운 독립운동가들
정책 문화 마을세우사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④ 연극배우 박정자
문화 캘린더 영 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 외
뮤직 인천 2021 인천시티팝
공연 문화산 음악회
이미지 뉴스 2030년 인천의 모습은...
시장 뉴스 바이오 강국의 미래, 인천에서 꽃핀다 외
의회 뉴스 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외
컬러링 인천 강화도 동막해변
인포 박스 여름휴가 전 코로나19 검사 꼭 받으세요 외
공간 인천 누들플랫폼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⑧ 대한성공회 인천대동교회
소소한 인천사 무의도, 장수는 흙을 추지 않았다 외
仁生 사진관 갈매기의 꿈
인천의 아침 그리운 금강산
포토 에세이 소래 연꽃공원의 처연상정處常淨

인천 미소 시민의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⑨ 송도역전시장
르포 해양환경 정화선 '씨클린호' 탐승기
가을 여행 것별
추석 특집 인천 대포 전통시장
자원순환 기획 플라스틱의 생환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⑯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정책 문화 명절에도 안전한 인천
시민 시장 김대봉 소래역전 영부
문화 캘린더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콘서트' 외
리뷰 2020 도쿄 올림픽
이미지 뉴스 스마트 관광 도시 인천
시장 뉴스 인천만의 먹거리 종합 전략 '푸드플랜' 외
의회 뉴스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외
컬러링 인천 광명항
인포 박스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보아요 외
공연 문화산 가을 음악회
인천크래프트 1945 대한 독립을 외쳐라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⑨ 소래 협계용 증기기관차
소소한 인천사 여덟 팔자 모양의 섬, 팔미도 외
仁生 사진관 추억의 앨범을 열어
인천의 아침 동인천의 귀환
포토 에세이 소래염전

인천 미소 환경으로 특별한 도시 인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전등사
제57회 인천시민의 날 시민애플, 인천애플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⑩ 노동의 시간
르포 생활폐기물 소각, 에너지화 현장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⑰ 인천신흥초등학교
특집 인천 수돗물 ISO 22000 인증 획득
정책 문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⑤ 최영섭 작곡가
문화중인 최영섭 악보 인천에 어떻게 오게 됐나
공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미지 뉴스 탄소 중립
시장 뉴스 '인천e음' 부가 서비스 소개 외
의회 뉴스 한국지엠과 지역 사회 상생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외
컬러링 인천 남동유수지
인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 청년' 5인 인터뷰
인포 박스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접종계획 안내 외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⑯ 인천세관 舊창고와 부속동
문화 캘린더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with 유리 바슈메트 외
소소한 인천사 가을 하면 '소래' 외
仁生 사진관 가을 우체통 앞에서
인천의 아침 인천시민의 날에 보는 '올웨이즈 인천'
포토 에세이 계양산에 깃든 가을

백령도의 하늘



백령도 바다 위로 물새들이 날아오고 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바다 표면에 얼굴을 내민 채 새까만 눈동자를 깜박거리는 점박이물범, 기암괴석에 달라붙어 쉬고 있는 가마우지 떼. 평화의 섬 백령도에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때는 1951년 1월이다. 수만 명의 피란민들이 바다를 건너 백령도에 닿았다. 며칠만 참고 계세요, 금세 돌아오겠습니다. 부모, 처자식에게 남겨놓은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며 바다 한가운데 무거운 장막이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그걸 북방한계선(NLL)이라 불렀다. 귀향길이 막힌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육지로 빠져나갔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꿈에도 잊히지 않는 고향 땅을 등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섬에 남아 타향에서의 삶을 꾸려나갔다. 음식으로나마 수구초심을 달래야 했다. 피란민들은 고향에서 먹던 냉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돼지 뼈를 푹 고아 끓여낸 육수에 까나리액젓, 들기름, 겨자, 식초를 적당히 뿌려 먹는 ‘백령냉면’은 그렇게 탄생했다. 백령도에 갈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사곳냉면’ 식당을 찾아 백령냉면만은 꼭 먹고 나왔다. 백령도 주민들은 늘 위태로워 보였다. 한밤중 사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전쟁 터지는 꿈을 꾸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대피소를 들락거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먹고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바다를 생계 터로 먹고사는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쌍끌이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어구와 어망을 마구 훼손하고 달아난다는 것이었다.

현안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의 ‘이동권’이었다. 연안부두~백령도를 하루 한 번 오가는 여객선은 안개가 끼면 운항을 중단하기 일쑤였고 인원이 넘쳐 승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 생각해 보니 백령도에 갈 때마다 안개가 끼는 바람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3~4일 머물다 나온 기억이 난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실이 반가운 것은 이 같은 백령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시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백령공항 예타 선정을 얻어냈다. 백령공항 건설을 위해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찾아갔으며 지역정치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시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배로 네 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이 한 시간으로 줄어든다. 인천과 백령도가 일일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변변한 병원 하나 없는 백령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다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공항이 들어서면 신속한 이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헬기 운항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공항 하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시는 백령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유치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럴 경우 제주도 부럽지 않은 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날아라! 백령도.



한 해의 마지막 달
모도 배미꾸미조각공원이 석양 노을에 물들어 갑니다.

하늘도 바다에도 물감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신묘한 주홍 빛깔이 번지는 중입니다.

올 한 해
우린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비지땀을 흘렸고,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실천하고, 옆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독려하며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왔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여명의 2022년에도
‘인천 시민시장들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도 조각상들이 바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